



차준희(한세대)

1. 들어가는 말

침멀리(W. Zimmerli)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전 12:11)라는 전도서의 에필로그에 의존하여 “전도서는 가시가 박힌 책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¹⁾ 이는 전도서 전체의 의도를 해석할 때 주석가들이 직면하는 난감함을 잘 드러낸 표현이다. 전도서 가운데에서도 특히 전도서 7장 25-29절은 전도서 전문가들의 중평에 따르면 가장 난해한 구절에 속

* 이 논문은 2011년도 한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W. Zimmerli, “Unverän- derbare Welt’ oder ‘Gott ist Gott’?: Ein Plädoyer für die Unaufgebbarkeit des Predigerbuches in der Bibel,” in: H.-G. Geyer et al. (Hrsg.), “Wenn nicht jetzt, wann dann?“, FS H.-J. Kraus, (Neukirchen-Vluyn, 1983), 103.

한다.²⁾ 로핑크(N. Lohfink)도 “최고로 복잡한 이 본문은 최고로 복잡한 주석을 요구한다”고 평하고 전도서 8장 1절의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나?”라는 인용으로 이 본문에 대한 자신의 논문을 마감할 정도이다.³⁾ 전도서에 대한 또 다른 전문가인 미첼(D. Michel)도 이 본문에 “반복적으로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본문을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자신할 수 없다고 자인하기도 한다.⁴⁾ 전도서 7장 25-29절은 전문가들에게도 백기를 들게 만드는 유명한 본문이다.

이 본문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은 26절의 내용이다.

“마음은 울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여성에 대한 혐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코헬렛의 성격이 판가름 난다. 코헬렛은 과연 안티페미니스트인가? 이 논문에서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이 구절의 해석과 관련된 기존의 학설을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학설을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계승하려고 한다.

-
- 2) L. Schwienhorst-Schönberger, “‘Bitterer als der Tod ist die Frau’(Koh 7,26). Zum Argumentationsgang von Koh 7,25–29,” in: K. Kiesow/T. Meurer(Hg.), *Textarbeit: Studien zu Texten und ihrer Rezeption aus dem Alten Testament und der Umwelt Israels*, FS P. Weimar, AOAT 294, 2003, 443–455, 특히 443.
 - 3) N. Lohfink, “War Kohelet ein Frauenfeind?: Ein Versuch, die Logik und den Gegenstand von Koh., 7,23–8,1a herauszufinden,” in: M. Gilbert(Hg.), *La Sagesse de l’Ancien Testament*, Bibliotheca Ephemeridum Theologicarum Lovaniensium 51,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79), 259–287, Notes additionelles, 1980, 417–420, 특히 287.
 - 4) D. Michel, *Untersuchungen zur Eigenart des Buches Qohelet: Mit einem Anhang von Reinhard G. Lehmann: Bibliographie zu Qohelet*, BZAW 183, (Berlin: de Gruyter), 1989, 225.

2. 전도서 7장 25-29절의 사역

이 본문의 의미를 원문에 충실하여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개인의 번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⁵⁾

25a α 내 자신이 내 마음을 돌이켜서 알고자 했고, 조사했고 찾고자 했다.

25a β 지혜와 명철을.

25b α 그리고 알고자 했다.

25b β 어리석음의 악함과 무지함의 어리석음을.

26a α 내 자신이 발견하고자 한다.

26a β “죽음보다 더 쓰다 그 여자(하이샤)는.

그녀는 올라미이고, 그물이다 그녀의 마음은.

포승줄이다 그녀의 손들은.

26b α 그 하나님 앞에 선한 자는 그녀로부터 피할 수 있다.

26b β 그러나 죄인은 그녀에게 걸려들 것이다.”

27a 보라 내가 발견한 이것을.

코헬렛이 말했다.

27b 하나하나씩 그 명철을 찾기 위해.

28a 계속해서 내 마음이 찾고자하는 것을, 그러나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28b α “천명 가운데 한 남자를 찾았다.

28b β 그러나 이 모두들 가운데 여자(이샤)는 찾지 못했다.”

5) 이 단락에 대한 상세한 주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차준희, “전통적 지혜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전도서 7장의 주석과 신학적 메시지”, 『구약논단』 42, 2011, 57-83.

- 29a α 단 한 가지,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을.
 29a β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르게 만드셨다.
 29b 그러나 그들은 많은 계략들(명철들)을 찾았다.

3. 기존 학설들과 이에 대한 평가

최근에 잉그램(D. Ingram)은 전도서 7장 26절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여덟 가지로 구분한다.⁶⁾ (1) 일반적인 여성,⁷⁾ (2) 특별한 종류의 여성,⁸⁾ (3) 코헬렛의 아내,⁹⁾ (4) 여인으로 인격화된 어리석음(Dame Folly),¹⁰⁾ (5) 여성으로 인격화된 지혜(Lady Wisdom),¹¹⁾ (6) 돌연사(an untimely death),¹²⁾ (7) 이교신앙(heresy),¹³⁾ (8) 결정론적인 힘의 대리자(the agent of a deterministic force).¹⁴⁾ 이러한 구분은 이 구절의 해석의 다양성을 부각시켜 주며, 다양한 해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상세한 나머지 논쟁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단점도 보

-
- 6) D. Ingram, "Riddled with Ambiguity": Ecclesiastes 7:23–8:1 as an Example," in: M. J. Boda/T. Longman III/C. G. Rata(eds.), *The Words of the Wise Are like Goads: Engaging Qohelet in the 21st Century*,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2013), 219–240, 특히 230.
 7) J. E. Shepherd, "Ecclesiastes," in: T. Longman III & D. E. Garland(eds.),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8), 325.
 8) M. A. Shields, *The End of Wisdom: A Reappraisal of the Historical and Canonical Function of Ecclesiastes*,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6), 185.
 9) 이러한 입장에 속한 학자들의 다양한 표현들은 매우 일찍부터 개진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보려면 다음을 참조하라. C. R. Fontaine, "Many Devices"(Qoheleth 7,23–8,1): Qoheleth, Misogyny and the Malleus Maleficarum," in: A. Brenner/C. R. Fontaine(ed.), *Wisdom and Psalms*, FCB 2/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137–168, 특히 153–157.
 10) C. L. Seow, *Ecclesiastes: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Notes*, AB (New York: Doubleday, 1997), 262.
 11) T. Krüger, *Kohelet(Prediger)*,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Sonderband),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0), 263.
 12) G. S. Ogden, *Qoheleth*, Readings: A New Biblical Commentary (Sheffield: Phoenix, 2007), 130.
 13) R. N. Sandberg, *Rabbinic Views of Qohelet*, Mellen Biblical Press Series 57 (Lewiston, NY: Edwin Mellen, 1999), 181.
 14) D. Rudman, *Determinism in the Book of Ecclesiastes*, JSOTSup 31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106–107.

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주장들을 네 가지로 분류하여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1) 일반적인 여성혐오 진술

이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이 구절을 여성혐오적인 내용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 라우하(A. Lauha)의 주장을 들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코헬렛은 명백하게도 여자는 유혹적이고 위험하다는 점을 표현하고 있다. 모든 여자는 요부이다.”¹⁵⁾

롱맨(T. Longman III)은 이러한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그는 여성편 하적인 진술을 순화하기 위해서 본문의 여성을 ‘모든 여성’이 아니라 ‘특정한 여성’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하고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만약 이 구절(26절)만 홀로 나온다면, 이러한 견해(특정한 여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해석, 논자의 주)는 견지될 수는 있다. 그러나 28절은 이러한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천명가운데에서도 단 한명의 선한 여성도 발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서본문은 여성혐오적 해석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⁶⁾

이와 유사한 입장을 가진 또 다른 학자로 콕스(M. V. Fox)를 언급

15) A. Lauha, *Kohélet*,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141.

16) T. Longman III, *The Book of Ecclesiaste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E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204.

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인용이론(Zitatentheorie)을 주장하는 로핑크(N. Lohfink)와 미첼(D. Michel)을 거론하며 그들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는다.

“몇몇 주석가들의 훌륭한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이 단락은 돌이킬 수 없이 여성혐오적(misogynistic)이다.”¹⁷⁾

“이 단락에는 수많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코헬렛은 여성의 명예를 변호하지 않는다. 코헬렛은 심술궂은 사람이다. 그는 남자에 대해서도 아주 높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물며 그가 여성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을 하리라고 기대할 이유가 없다.”¹⁸⁾

이 부분에 대한 콕스의 생각은 몇 년이 지난 이후 발행한 그의 주석에서도 변치 않고 계속된다.

“많은 학자들이 여성혐오적 톤을 낮추어보려고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전도서 7:28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코헬렛은 모든 여성을 폄하하고 있다..... 코헬렛이 여성을 혹평하는 것은 잠언이 남자를 음행하도록 함정에 빠뜨리는 ‘이상한’ 혹은 ‘금지된’ 여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유사하다. 예를 들면,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잠 22:14; 참조. 잠 23:27). 코헬렛은 여기서 모든 여성은 그와 같다고 주장한다”(볼드체는 Fox의 것이다).¹⁹⁾

17) M. V. Fox, *A Time to Tear Down & A Time to Build Up: A Rereading of Ecclesiastes*, (Eugene, Oregon: Wipf & Stock, 1999), 266.

18) M. V. Fox, *A Time to Tear Down & A Time to Build Up: A Rereading of Ecclesiastes*, 267.

19) M. V. Fox, *Ecclesiastes*, The JPS Bible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4), 51.

이 논쟁에 대하여 국내학자 가운데 이와 유사한 주장을 펴는 이가 있다. 민영진은 여성 편견이 더 심한 외경 집회서를 부록으로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코헬렛의 견해를 문자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민영진은 코헬렛을 여성 편견을 가진 자로 해석한다.

“그는 한 여성을 만나서 관찰하고서 여성 전체를 평가하는 남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²⁰⁾

“코헬렛의 여성관은 별로 모범적이지 않고, 창조 전승과 예수와 사도들의 여성관과도 차이를 보이지만, 지혜 전승에서 남성들이 여성들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그 일면을 보여 주기에는 충분하다.”²¹⁾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현대적인 상황에서도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전도서의 본래적인 맥락과도 충돌한다는 점이 큰 약점이다.²²⁾ 코헬렛은 다른 곳에서 오히려 여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이사)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전 9:9).

코헬렛의 모호성이 그 자신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20) 민영진, 『전도서/아가』,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168.

21) 민영진, 앞글, 169.

22) T. Krüger, *Kohelet(Prediger)*,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Sonderband, 266.

지는 모르지만,²³⁾ 코헬렛이 여성혐오적인 입장을 가진 자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코헬렛이 명시적으로 보여준 전도서 9장 9절의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정면으로 모순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이 설득력이 약하는 점이 드러난다.²⁴⁾

또한 룡맨이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전도서 7장 28절의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진술을 제시한다. 그러나 전도서 7장 28절은 문맥상 코헬렛의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28a절은 코헬렛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음을 알려준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한 사람을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코헬렛이 그 근거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으나 결국은 실패한, 즉 논증할 수 없는 주장이 28b절에 인용된 것이다: “천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는 여자<이샤>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코헬렛은 스스로 이러한 여성혐오적인 주장을 입증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한다. 코헬렛은 28b절의 주장을 거부한다.²⁵⁾ 따라서 코헬렛을 안티페미니스트로 몰아가는 것은 적당해보이지 않는다.

2) 부분적인 여성혐오 진술(특정한 여인/음녀)

여기서 언급된 여성에 관한 표현은 일반적인 여성 전체가 아니고 ‘특정한 여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해석들이 있다. 먼저 크렌쇼(J. L. Crenshaw)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3) 최근에 전도서는 근본적으로 모호하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논지를 편 연구가 대두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D. Ingram, *Ambiguity in Ecclesiastes*, (LHBOTS 431; New York: T. & T. Clark, 2006); D. Ingram, “Riddled with Ambiguity: Ecclesiastes 7:23–8:1 as an Example,” in: M. J. Boda/T. Longman III/C. G. Rata(eds.), *The Words of the Wise Are like Goats: Engaging Qohelet in the 21st Century*, 219–240; D. Ingram, “The Riddle of Qohelet and Qohelet the Riddler,” *JSOT* 37(2013), 485–509.

24) L. Schwienhorst-Schönberger, “Bitterer als der Tod ist die Frau (Koh 7,26). Zum Argumentationsgang von Koh 7,25–29,” 445.

25) 차준희, *읽글*, 73.

“남자를 유혹하는 여성이라는 주제는 고대근동의 지혜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이다. 이는 ‘이방’(foreign) 여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잠언의 내용을 다시 보여준다.”²⁶⁾

이러한 입장은 머피(R. Murphy)의 해석에서도 나타난다. 머피는 그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이러한 발견은 지혜 문헌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통적인 주제로 보인다(참조. 잠 2:16-10; 5:1-4; 7:22-23; 9:13-18 또한 22:15; 23:27-28). 음녀(the adulterous woman). 이러한 묘사는 지혜자들이 지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특정한 종류의 여인에게 적합하다.”²⁷⁾

이 주제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한 리제너(I. Riesener)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는다.

“코헬렛 7:26은 전형적인 ‘여성’에 대한 인류학적 진술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잠언에서 나오는 병행본문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코헬렛은 여기서 ‘이방 여인’(fremde Frau)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다.”²⁸⁾

리제너와 같은 해에 이 주제에 관하여 리히터(H.-F. Richter)도 다룬 적이 있다. 리히터는 코헬렛을 여성혐오적인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은

26) J. L. Crenshaw, *Ecclesiastes*,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7), 146.

27) R. Murphy, *Ecclesiastes*, Word Biblical Commentary (Dallas, Texas: Word Books, 1992), 76.

28) I. Riesener, “Frauenfeindschaft im Alten Testament? Zum Verständnis von Qoh 7,25-29,” in: A. A. Diesel/R. Lehmann/E. Otto/A. Wagner(Hg.), *Jedes Ding hat seine Zeit...* (FS D. Michel, BZAW 241, (Berlin: de Gruyter, 1996), 193-207, 특히 206.

잘못된 해석이라고 비판하고,²⁹⁾ 여기서 언급된 사람은 일반적인 여인이 아니라 ‘잘못된 여인’(falsche Frau)으로 보고 있다.

“아무튼 코헬렛은 여성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³⁰⁾

국내 구약학자 가운데 이 구절의 여인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가톨릭 구약학자인 박요한 영식과 개신교의 김영진의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박요한 영식은 잠언 5장 18b-19절(“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겨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죽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을 근거로 코헬렛은 일반적인 여성에 대해서 여성혐오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³¹⁾ 그리고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코헬렛 자신의 실험은 그가 올가미와 같이 행동하는 한 여인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이것은 전통적인 지혜와 일치한다. 이에 따르면 여인 혹은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악한 여인(잠 6:24)은 깊은 구렁이가 될 수 있다.”³²⁾

“저자의 진정한 의도는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good) 처신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점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사악한 여인(a wicked woman)으

29) H.-F. Richter, “Kohélet Urteil über die Frauen: Zu Koh 7,26, 28 und 9,9 in ihrem Kontext,” ZAW 108, 1996, 584-593, 특히 593.

30) H.-F. Richter, “Kohélet Urteil über die Frauen: Zu Koh 7,26, 28 und 9,9 in ihrem Kontext,” 588-589.

31) J. Y. S. Pakh, “Women as Snares: A Metaphor of Warning in Qoh 7,26 and Sir 9,3,” in: N. Calduch-Benages/J. Vermeylen(eds.), *Treasures of Wisdom: Studies in Ben Sira and the Book of Wisdom*, Festschrift M. Gilbert, BETL 143, (Leuven: Peeters/Leuven University Press, 1999), 397-404, 특히 399.

32) J. Y. S. Pakh, “Women as Snares: A Metaphor of Warning in Qoh 7,26 and Sir 9,3,” 398.

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행하는 것이다.”³³⁾

김영진도 그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26절의 여인은 음녀를 의미한다. 인간은 본래 음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자는 이 유혹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³⁴⁾

이러한 해석에서 있는 연구들은 26절의 여인을 ‘특정한 여인’으로 이해한다. 그들은 ‘에트-하이샤 아쉐르-히’라는 히브리 표현구에서 ‘아쉐르’라는 관계대명사에 주목한다. 사실 이 구절은 26절의 관계대명사 <아쉐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아쉐르>는 문법적으로 본다면 ‘설명적’(explikativ)인 의미로 혹은 ‘제한적’(restriktiv)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³⁵⁾

설명적인 <아쉐르>로 본다면, “여인이 사망보다 더 쓰다”는 주장이 이어서 나오는 진술에 의하며 상세하게 설명되거나(‘즉’, ‘말하자면’) 혹은 이어지는 진술은 근거로 제시된다(‘왜냐하면’).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번역된다. “죽음보다 더 쓰다 그 여자<하이샤>는. 그녀는 올라미이고, 그물이다 그녀의 마음은. 포승줄이다 그녀의 손들은.”

그러나 제한적인 <아쉐르>로 해석한다면, 일반적인 여성이 아니라 특정한 여성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여인이 사망보다 더 쓰다고 할 경우의 여인은 특정한 범주의 여성으로 제한된다. 모든 여인이 아니라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우리

33) J. Y. S. Pakk, “Women as Snares: A Metaphor of Warning in Qoh 7,26 and Sir 9,3,” 400.

34) 김영진, 『삶의 의미를 찾아서』 (서울: 이레서원, 2008), 135-136.

35) T. Krüger, T. “Frau Weisheit’ in Koh 7,26?,” *Biblica* 73 (1992), 394-403, 특히 395.

말 개역개정성경의 번역과 같다.

미첼은 관계대명사 <아쉐르>는 문법적으로는 양쪽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았다.³⁶⁾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선부른 것을 보인다. <아쉐르>에 이어서 나오는 <히>를 간관한 것이 문제이다. 일찍이 고르디스(R. Gordis)가 올바르게 통찰한바 같이, <아쉐르 히>에서 <히>는 여기서 단순한 ‘연결사’(copula)가 아니라 ‘고리형’(casus pendens)³⁷⁾의 두 가지 사례를 강조하고³⁸⁾ 도입하기 위해 주어를 다시 시작하는 수단이다. 여기서 두 가지 사례는 여성형 접미어로 연결된 <리바브>(그녀의 마음)와 <아테하>(그녀의 손들)를 가리킨다.³⁹⁾ 즉 <하쉐르 히>는 여기서 제한적인 용법이 아니라, 설명적인 용법으로 쓰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⁴⁰⁾ 따라서 여기서 <아쉐르>는 ‘즉’ 혹은 ‘말하자면’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특정한 여성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여성 전반을 언급하는 것이다.

3) 비유적 진술(여성으로 인격화된 지혜/여인으로 인격화된 어리석음)

크뤼거(T. Krüger)는 이 구절의 해석에 대하여 또 다른 길을 모색한다. 크뤼거는 이 본문의 문제를 전도서 7장 23-29절의 맥락에서 풀이하고 있다. 그는 이 단락이 한 단위를 이루고 있음을 논증하고, 이 단락의 전반부인 23-25절은 지혜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

36) D. Michel, *Untersuchungen zur Eigenart des Buches Qohelet: Mit einem Anhang von Reinhard G. Lehmann: Bibliographie zu Qohelet*, 228.

37) 이 번역은 다음의 책에서 따온 것이다. 주용-무라오까, 『성서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서울: 기훈, 2012), 643-646.

38) A. Lauha, *Kohelet*,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141.

39) R. Gordis, *Koheleth—The Man and His World. A Study of Ecclesiastes*, (New York: Schocken, 1968), 273-274.

40) R. N. Whybray, *Ecclesiastes*,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89), 125; D. Michel, *Untersuchungen zur Eigenart des Buches Qohelet: Mit einem Anhang von Reinhard G. Lehmann: Bibliographie zu Qohelet*, 228 등.

다.⁴¹⁾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전 7:23b). 크뤼거가 여기서 코헬렛이 지혜비판적인 입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은 올바른 판단으로 보인다.⁴²⁾ 이어서 그는 26절의 여성이 ‘여성으로 인격화된 지혜’(Frau Weisheit/Lady Wisdom)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검토한다. 그는 집회서 6장 23-31절에서 지혜가 잠언 7장 26절의 여성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술되고 있음을 근거로 이 구절의 여성이 지혜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⁴³⁾ 즉 크뤼거는 26절의 여성을 ‘여성 지혜’로 간주한다. 크뤼거의 이러한 주장은 이후에 출간된 그의 주석에서도 반복된다.

“23-24절도 함께 고려하고 23a절(“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바호크마] 시험하며”)을 23-29절의 표제로 해석한다면, 26절의 ‘여성’은 잠언 1-9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참조. 잠 1:20-33; 8:1-9:6 또한 집회서 24장) ‘여성으로 인격화된 지혜’(Frau Weisheit)로 인식된다. 그 여성으로 인격화된 지혜는 집회서 6:23이하에서 전도서 7:26a의 ‘여성’과 아주 유사한 속성으로 묘사된다.”⁴⁴⁾

크뤼거와 유사하게 이 여인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또 다른 학자가 등장했다. 바로 세우(C. L. Seow)라는 학자이다. 그는 이 여자를 ‘여인으로 인격화된 어리석음’(Dame Folly)으로 해석한다. 그의 주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것(전 7:26, 필자 주)은 여성 전반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이것은 특정한

41) T. Krüger, T. “Frau Weisheit’ in Koh 7,26?,” 396-397.

42) 이 점은 필자의 이전 연구에서도 발표한바 있다. “이 진술(전 7:23-24)은 지금까지 전도자가 언급했던 지혜비판적인 표현들을 상기시킨다(전 1:16-18; 2:13-17; 7:7-10, 11-14, 15-20). 전도자는 전통적인 지혜개념과는 거리를 둔다.” 차준희, “전통적 지혜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전도서 7장의 주석과 신학적 메시지”, 70.

43) T. Krüger, T. “Frau Weisheit’ in Koh 7,26?,” 402.

44) T. Krüger, *Kohélet(Prediger)*,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Sonderband*, 267.

여성이나 특별한 형태의 여성을 향한 가시 돋친 말이 아니다. 이 본문에는 ‘그 여성’이라는 정관사(히브리어 정관사를 동반)가 사용된다. 마치 독자들도 알고 있는 여성을 가리킨다. 이 본문의 직접적인 맥락에서 가장 그럴듯한 지시 대상은 히브리어 여성명사인 어리석음(*folly*, *hassiklut*)이다. 이 단어는 앞선 구절에서 정관사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명사이다. 이것은 이 본문에 대한 최초의 번역자인 헬라이어 번역의 해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장 그럴듯할 것이다. 26절의 언어는 위험한 여자에 대한 전통적인 지혜의 가르침을 반항하고 있다. 이 여자는 지혜로부터 떨어져 나오도록 애쓰는 유혹하는 여자이다. 이렇게 치명적으로 유혹하는 여자는 지혜의 반대, 즉 ‘다른 여자’(other woman)이다.⁴⁵⁾

“따라서 이러한 요부(*femme fatale*)는 어떤 개별적인 여자가 아니다. 그 여자는 특별한 형태의 여자가거나 일반적인 여자로 간주해야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 여자는 어리석음 자체의 합성 이미지(*a composite image of Folly herself*)이다(잠9:13-18).⁴⁶⁾

이러한 해석을 따르는 가장 최근의 주석가로 바돌로메우(C. G. Bartholomew)에 주목해보기로 한다. 그는 세우의 주장을 수용하며 다음같이 결론을 맺는다.

“따라서 26절은 잠언 1-9장의 메시지를 요약하는 진술에 이른다: ‘어리석음으로부터 출행량을 처라(*Flee folly!*)!’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여인으로 인격화된 어리석음(*Dame Folly*)은 코헬렛이 찾아 왔고 이제 발견한 죽음보다 독

45) C.-L. Seow, *Ecclesiast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97), 271.

46) C.-L. Seow, *Ecclesiast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Anchor Bible, 272.

한 바로 그 여자이다(26a절). 코헬렛 자신은그 여자에게 사로잡혔던 죄인이
다(26c절).”⁴⁷⁾

이러한 해석방향과 같은 흐름을 타는 국내 구약학자들의 연구들도
있다. 먼저 장성길의 해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잠언은 음녀와 미려한 여인을 나쁜 여인으로, 현숙한 여인을 여자의 이상형
으로 반복해서 제시하고 있다. 잠언과 비교했을 때, 전도서는 여인에 대한 언
급이 상대적으로 적다. 7:25-29에서 말하는 여인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여
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혜 교사가 두려워하는 여인이며, 잠언에서 주
로 요부 은유를 통해 묘사된 의인화된 여인을 말한다. 그 여인은 유혹적이
며, 포악하며, 용의주도하게 살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지혜를 살피
는 과정 속에서 코헬렛은 죄인들을 유혹하여 사로잡는 여인이 있음을 발견한
다.”⁴⁸⁾

이와 유사한 입장을 보여주는 채은하의 주장을 들어보자.

“이 부분(잠 7:26-29, 필자 주)에서는 오히려 지혜가 여성으로 인격화되듯이
그와 정반대의 개념인 어리석음 26절의 ‘그 여인’으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 여인’을 이해하기를, 지혜로부터 사람들을 유혹하는 여자, 즉 어리석
음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도서 7:26의 ‘그 여인’을 인간 여성이 아
니라 오히려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여성으로 간주할 때 지혜의 문제와 잘 연
결된다.”⁴⁹⁾

47) C. G. Bartholomew, *Ecclesiastes*, Baker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Wisdom and Psalm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09), 267.

48) 장성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 (용인: 킹덤박스, 2012), 182.

49) 채은하, 『전도서』, 한국장로교총회창립 100주년기념 표준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3), 150-151.

슈빈호르스트-쉴베르거(L. Schwienhorst-Schönberger)가 바르게 지적하고 있듯이, 26절에 대한 비유적인 해석의 가장 큰 문제는 본문에 명시적으로 두 번(26aβ절, 28bβ절) 언급된 여자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⁵⁰⁾

26aα 내 자신이 발견하고자 한다.

26aβ “죽음보다 더 쓰다 그 여자<하이샤>는.

그녀는 울가미이고, 그물이다 그녀의 마음은.

포승줄이다 그녀의 손들은.

26bα 그 하나님 앞에 선한 자는 그녀로부터 피할 수 있다.

26bβ 그러나 죄인은 그녀에게 걸려들 것이다.”

.....

28a 계속해서 내 마음이 찾고자하는 것을, 그러나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28bα “천명 가운데 한 남자<아담>를 찾았다.

28bβ 그러나 이 모두들 가운데 여자<이샤>는 찾지 못했다.”

26aβ절의 “그 여자”<하이샤>와 28bβ절의 여자<이샤>는 같은 단어이다. 그런데 비유적인 해석은 이 동일한 여자를 달리 해석한다. 즉 전자는 비유적으로, 후자는 문자적인 의미로 본다. 그러나 28b절은 반의적 평행법(*antithetischer Parallelismus*)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28bα절에서는 “남자”를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28bβ절의 “여자”를 비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같은 단락에서 동일하게 쓰이는 단어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50) L. Schwienhorst-Schönberger, “‘Bitterer als der Tod ist die Frau’(Koh 7,26). Zum Argumentationsgang von Koh 7,25–29,” in: K. Kiesow/T. Meurer(Hg.), *Textarbeit: Studien zu Texten und ihrer Rezeption aus dem Alten Testament und der Umwelt Israels*, FS P. Weimar, AOAT 294, 2003, 443–455, 특히 445.

4. 인용이론

전도서 7장 26절에 대한 해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주장인 위에서 검토한 일반적인 여성혐오 진술설, 부분적인 여성혐오 진술설, 그리고 비유적 진술설 등은 모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 논문은 새로운 해석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이제 새로운 이론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길을 제시한 논문이 1979년에 발표되었다. 소위 인용이론(Zitatenmodell)이 제시된 것이다.⁵¹⁾ 로핑크(N. Lohfink)는 “코헬렛은 여성의 적대자인가?”라는 소논문에서 실질적으로는 처음으로 인용이론의 포문을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⁵²⁾ 로핑크는 이 아이디어를 침멀리(W. Zimmerli)로부터 배웠다고 하였다.

“내가 여기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분석은 전적으로 침멀리의 통찰에 근거하고 있다.”⁵³⁾

침멀리는 그의 전도서 주석에서 코헬렛은 자신의 글에 반영하고 있는 전통적인 지혜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적 지혜에 대하여 코헬렛 자신의 새로운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⁵⁴⁾ 로핑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51) 이러한 모델은 이전에도 씨앗형태로 발표된바 있다. 예를 들면, M. Mendelssohn(1771), F. Hitzig(1847), L. Levy(1912), R. Gordis(1968) 등,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élet*, Herders Theologischer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Freiburg: Verlag Herder, 2004), 67.

52) N. Lohfink, “War Kohehet ein Frauenfeind?: Ein Versuch, die Logik und den Gegenstand von Koh., 7,23–8,1a herauszufinden,” in: M. Gilbert(Hg.), *La Sagesse de l’Ancien Testament*, Bibliotheca Ephemeridum Theologicarum Lovaniensium 51,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79), 259–287, Notes additionelles, 1980, 417–420.

53) N. Lohfink, “War Kohehet ein Frauenfeind?: Ein Versuch, die Logik und den Gegenstand von Koh., 7,23–8,1a herauszufinden,” 267.

54) H. 링그렌/W. 침멀리/박영옥 역, 『잡언/전도서(국제성서주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201.

“(전도서에서, 필자 주) 언급되자마자 바로 이어서 비판적으로 평가되는 전통의 인용으로서 간주되는 ‘여성’에 대한 진술로, 의심의 여지없이 처음으로 문제가 되는 본문이 전 7장 26절이다..... 코헬렛은 여성에 대한 진술을 인용하고 이어서 논쟁하고 있다.”⁵⁵⁾

로핑크의 이 입장은 다음 해(1980년)에 출간된 전도서 주석서에서도 발견된다.

“사례연구로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격언의 말씀이 수용된다(26절). 이 말씀은 이 단락(전 7:23-8:1a, 필자 주)에서 기존 전통에 대한 인용으로 보인다.”⁵⁶⁾

미첼(D. Michel)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미첼은 전도서 7장 25-29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았지만 아직도 자신 있게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또한 로핑크의 연구도 개별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탁월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 단락의 의문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표한다.⁵⁷⁾ 그러나 로핑크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보다 심도 있게 파고든 미첼은 26절이 인용 구절이라는 점에는 일치하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 점은 미첼의 또 다른 연구서에서 명확하게 언급된다.

“이 난해한 본문의 코헬렛은 분명히 26절의 여성혐오적인 견해를 인용한다.

55) N. Lohfink, “War Kohehet ein Frauenfeind?: Ein Versuch, die Logik und den Gegenstand von Koh., 7,23-8,1a herauszufinden,” 273.

56) N. Lohfink, *Kohelet, Die Neue Echter Bibel*, (W rzburg: Echter Verlag, 1980, ³1986), 56.

57) D. Michel, *Untersuchungen zur Eigenart des Buches Qohelet: Mit einem Anhang von Reinhard G. Lehmann: Bibliographie zu Qohelet*, 225.

코헬렛은 29절에서 이 견해에 대하여 회의적인 주석을 제시한다.⁵⁸⁾

이 주제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자들 중에서 가장 최근의 것으로 슈빈호르스트-셴베르거(L. Schwienhorst-Schönberger)의 논문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⁵⁹⁾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전도서 7장 26aβ절은 여성혐오적인 전통이 인용된 것이다. 이 전통은 처음에는 아무런 논평 없이 수용되었다. 즉 코헬렛은 여인은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견해를 이미 여러 차례 알고 있다. 이 인용은 26αα절과 27절로 둘러싸여 있다. 이것은 최초의 독자에게는 아직은 인용으로 명확하게 인식되지는 못했다.”⁶⁰⁾

이 구절을 인용이론으로 이해한 국내연구로는 필자의 논문이 처음으로 보인다. 필자는 전도서 7장에 대한 주석적 연구에서 이 구절을 인용으로 이해한다.

“26절은 전도자의 견해가 아니라 전도자가 발견한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인용구의 내용 가운데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라는 진술은 여성혐오적인 묘사의 최고 절정을 대변하고 있다. 이 표현보다 더 노골적이고 더 강하게 여성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또 있을까? 전도자는 이와 같은 여성혐오적인 진술의 타당성을 철저하게 검증한다.”⁶¹⁾

“28a절은 전도자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발견하지 못한 것

58) D. Michel, *Qohelet*, EdF 258,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8), 153.

59) L. Schwienhorst-Schönberger, “Bitterer als der Tod ist die Frau”(Koh 7,26), Zum Argumentationsgang von Koh 7,25-29,” 443-455.

60) L. Schwienhorst-Schönberger, “Bitterer als der Tod ist die Frau”(Koh 7,26), Zum Argumentationsgang von Koh 7,25-29,” 455.

61) 차준희, *딤편*, 72.

이 있음을 알려준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전도자가 그 근거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한, 즉 논증할 수 없는 주장이 28b절에 인용된다: “천사님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전도자는 이러한 여성혐오적인 주장을 입증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한다. 전도자는 28b절의 주장을 거부한다.”⁶²⁾

최근에 전도서에 대한 주석서를 출간한 이태훈도 인용이론을 수용하고 있다.

“우리는 여성평화적인 이 말을 전도자 자신의 견해로 이해할 수 없다. 전도자는 여인에 대해 결코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참조. 전 9:9)..... 그렇다면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도자가 인용하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26절의 말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간접인용으로 이해한다.”⁶³⁾

요스트(R. Jost)도 바르게 판단하고 있듯이, 코헬렛은 26절의 여성에 대한 진술을 악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라고 간주한다.⁶⁴⁾ 코헬렛은 여성혐오적인 주장은 악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며, 우매한 것이요 미친 것의 전형이라고 한다.

62) 윗글, 73.

63) 이태훈, 『행복의 전도자: 전도서 주해』(서울: 그리스, 2013), 232.

64) R. Jost, “Frau und Adam(hebr. אָדָם): Feministische Überlegungen zur Auslegung von Kohelet 7,23–29,” in: E. S. Gerstenberger/U. Schoenborn(Hg.), *Hermeneutik – Sozialgeschichtlich: Kontextualität in den Bibelwissenschaften aus der Sicht (latein) amerikanscher und europäischer Exegetinnen und Exegeten*, Exegese in unserer Zeit 1, (Münster: Lit, 1999), 59–67, 특히 65.

5. 나가는 말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진술은 그리스 문헌에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⁶⁵⁾ 코헬렛은 당시 유행했던 헬레니즘의 경향인 여성혐오사상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헬렛은 전통적인 지혜사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조의 헬레니즘의 사상과도 비판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유대의 전통적인 지혜 문헌에서는 여성 자체를 혐오적인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다만 젊은 남자 청년에게 이방 여인, 잔소리 많은 여인과 부도덕한 여인을 경계하라고 하지, 여인 자체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지는 않는다(참조. 잠 2:16-19; 6:20-35; 7장; 11:22; 욥 31:9-10 등).⁶⁶⁾ 구약의 지혜문학에서는 여성을 오히려 높이 평가한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야웨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잠 18:22; 참조. 잠 5:15-20; 12:4; 19:14; 31:10-31).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복된 존재이다. 한쪽의 비하는 또 다른 한쪽의 추락을 의미한다. 남녀는 공동 운명체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창 2:23-24). 인생의 양쪽 날개가 창공을 향하여 높이 비상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동등하고 존중해야 할 것이다.⁶⁷⁾ 코헬렛은 안티페미니스트가 아니다.

인용이론은 특히 전도서의 상호 모순적으로 보이는 본문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코헬렛은 지혜와 부와 인생의 기쁨을 부정적으로 보는가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는가? 그는 회의론자, 비판론자, 허무주의자인가 아니면 행복 전도사인가? 전도서는 상호관련성이 희박한 수 집물인가 아니면 계획적으로 체계화된 구성물인가? 코헬렛은 과연 하

65)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elet*, Herders Theologischer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408.

66) 잠언 31장 3절(“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은 예외적인 경우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왕의 아들에게 준 경고로서, 여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왕실의 규방(Herem)과 관련하여 경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67) 차준희, *딤펁*, 76.

나님을 부정하는 자인가 아니면 경외하는 자인가? 이 책은 과연 성경에 속해도 되는가? 등 이러한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책이 코헬렛이다.⁶⁸⁾ 한마디로 전도서는 구약성경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일 것이다. 이는 서로 모순되는 진술들이 눈에 띄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일 것이다. 이러한 모순은 인용이론으로 잘 설명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음의 본문이다.

12절 죄인은 백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나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14절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구절에서 12a절과 12b-13절은 서로 반대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14절은 12b-13절과 또 다른 말을 하고 있다. 12b-13절은 전통적인 지혜를 말하고, 12a절과 14절은 이를 반박한다. 코헬렛은 12b-13절을 인용하고 이를 반박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⁶⁹⁾

인용이론을 통하여 전도서의 특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코헬렛은 전통적인 지혜의 한계를 지적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새로운 사상인 헬라 철학에도 비판적으로 대응한다. 코헬렛은 회의주의자도 아니고,

68) A. Käser, "Kohélet und die Suche nach Sinn: Kohärenzzuschreibung als Konstante in der Wende der Kohéletexegese," *theologische Beiträge* 42, 2011, 143-154, 특히 143.

69) 차준희, 『시가서 바로 읽기』 (서울: 성서유니온, 2013), 174-175.

무신론자도 아니다. 그는 전통적 신앙으로 해명되지 않는 신앙의 사각 지대를 파고들어 신학적으로 새롭게 조명해주고 있다. 코렐렛은 전통적인 지혜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해준다. 또한 새로운 사상에 몰들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6. 참고문헌

- 김영진, 『삶의 의미를 찾아서』, 서울: 이레서원, 2008.
- 구자용,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카르페 디엠(Carpe Diem)! : 전도서 이해의 열쇠로서의 죽음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43, 2012, 82-104.
- 링그렌, H. /칩멀리, W. 『잠언/전도서』, 국제성서주석, 박영옥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 민영진, 『전도서/아가』,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박영준, “전도서에서의 종말론적 개념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43, 2012, 105-128.
- 배정훈, “전도서에 나타난 잠정적인 지혜,” 『구약논단』42, 2011, 10-32.
- 유윤중, “전도서 안의 창세기,” 『구약논단』7, 1999, 95-118.
- 이태훈, 『행복의 전도사: 전도서 주해』. 서울: 그리심, 2013.
- 장성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 용인: 킹덤북스, 2012.
- 주용-무라오까, 『성서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서울: 기혼, 2012.
- 차준희, “전도서 5장의 신학적 읽기: 주석과 메시지”, 『구약논단』36, 2010, 116-135.
- _____, “무덤에서 나온 지혜: 전 9장의 주석과 메시지”, 『구약논단』37, 2010, 196-217.

_____, “전통적 지혜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전도서 7장의 주석과 신학적 메시지”, 『구약논단』 42, 2011, 57-83.

_____, 『시가서 바로 읽기』, 서울: 성서유니온, 2013.

채은하, 『전도서』 한국장로교총회창립 100주년기념 표준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3.

홍성혁, “전도서 속에 나타난 ‘헤벨’의 아니러니와 그 수사적 기능,” 『구약논단』 42, 2011, 33-56.

Bartholomew, C. G. *Ecclesiastes*, Baker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Wisdom and Psalm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09.

Crenshaw, J. L. *Ecclesiastes*,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7.

Fontaine, C. R. “‘Many Devices’ (Qoheleth 7,23-8,1): Qoheleth, Misogyny and the Malleus Maleficarum,” in: A. Brenner/C. R. Fontaine (ed.), *Wisdom and Psalms*, FCB 2/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137-168.

Fox, M. V. *A Time to Tear Down & A Time to Build Up: A Rereading of Ecclesiastes*, Eugene, Oregon: Wipf & Stock, 1999.

Fox, M. V. *Ecclesiastes*, The JPS Bible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4.

Gordis, R. *Kobeletb-The Man and His World. A Study of Ecclesiastes*, New York: Schocken, 1968.

Ingram, D. “‘Riddled with Ambiguity’: Ecclesiastes 7:23-8:1 as an Example,” in: M. J. Boda/T. Longman III/C. G. Rata (eds.), *The Words of the Wise Are like Goats: Engaging Qohelet in the 21st Century*,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2013, 219-240,

Ingram, D. *Ambiguity in Ecclesiastes*, LHBOTS 431; New York: T. & T.

- Clark, 2006.
- Ingram, D. "The Riddle of Qohelet and Qohelet the Riddler," *JSOT* 37(2013), 485-509.
- Jost, R. "Frau und Adam(hebr. אָדָם): Feministische Überlegungen zur Auslegung von Kohelet 7,23-29," in: E. S. Gerstenberger/ U. Schoenborn(Hg.), *Hermeneutik-Sozialgeschichtlich: Kontextualität in den Bibelwissenschaften aus der Sicht (latein) amerikanscher und europäischer Exegetinnen und Exegeten, Exegese in unserer Zeit 1*, Münster: Lit, 1999, 59-67.
- Käser, A. "Kohelet und die Suche nach Sinn: Kohärenzzuschreibung als Konstante in der Wende der Koheletexegese," *theologische beiträge* 42, 2011, 143-154.
- Krüger, T. "Frau Weisheit' in Koh 7,26?," *Biblica* 73 (1992), 394-403.
- Krüger, T. *Kohelet(Prediger)*,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Sonderband),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0.
- Lauha, A. *Kohelet*,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 Lohfink, N. "War Kohelet ein Frauenfeind?: Ein Versuch, die Logik und den Gegenstand von Koh., 7,23-8,1a herauszufinden," in: M. Gilbert(Hg.), *La Sagesse de l'Ancien Testament*, Bibliotheca Ephemeridum Theologicarum Lovaniensium 51,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79, 259-287, Notes additionelles, 1980, 417-420.
- Lohfink, N. *Kohelet*, Die Neue Echter Bibel, Würzburg: Echter Verlag, 1980, 31986.
- Longman III, T. *The Book of Ecclesiastes*, The New International

-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E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 Michel, D. *Qohelet*. EdF 258,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8.
- Michel, D. Untersuchungen zur Eigenart des Buches Qohelet: Mit einem Anhang von Reinhard G. Lehmann: Bibliographie zu Qohelet, BZAW 183, Berlin: de Gruyter, 1989.
- Murphy, R. *Ecclesiastes*, Word Biblical Commentary, Dallas, Texas: Word Books, 1992.
- Ogden, G. S. *Qoheleth*, Readings: A New Biblical Commentary, Sheffield: Phoenix, 22007.
- Pahk, J. Y. S. "Women as Snares: A Metaphor of Warning in Qoh 7,26 and Sir 9,3," in: N. Calduch-Benages/J. Vermeylen (eds.), *Treasures of Wisdom: Studies in Ben Sira and the Book of Wisdom*, Festschrift M. Gilbert, BETL 143, Leuven: Peeters/Leuven University Press, 1999, 397-404.
- Richter, H.-F. "Kohelet Urteil über die Frauen: Zu Koh 7,26, 28 und 9,9 in ihrem Kontext," *ZAW* 108, 1996, 584-593.
- Riesener, I. "Frauenfeindschaft im Alten Testament? Zum Verständnis von Qoh 7,25-29," in: A. A. Diesel/R. Lehmann/E. Otto/A. Wagner (Hg.), *Jedes Ding hat seine Zeit...* FS D. Michel, BZAW 241, Berlin: de Gruyter, 1996, 193-207.
- Rudman, D. *Determinism in the Book of Ecclesiastes*, JSOTSup 31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 Sandberg, R. N. *Rabidic Views of Qohelet*, Mellen Biblical Press Series 57, Lewiston, NY: Edwin Mellen, 1999.
- Schwienhorst-Schönberger, L. "Bitterer als der Tod ist die Frau'

- (Koh 7,26). Zum Argumentationsgang von Koh 7,25-29,”
in: K. Kiesow/T. Meurer(Hg.), *Textarbeit: Studien zu Texten und
ihrer Rezeption aus dem Alten Testament und der Umwelt Israels*, FS P.
Weimar, AOAT 294, 2003, 443-455,
- Schwienhorst-Schönberger, L. *Kohélet*, Herders Theologischer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Freiburg: Verlag Herder,
2004.
- Seow, C. L. *Ecclesiastes: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Notes*, AB,
New York: Doubleday, 1997.
- Shepherd, J. E. “Ecclesiastes,” in: T. Longman III & D. E.
Garland(eds.),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8.
- Shields, M. A. *The End of Wisdom: A Reappraisal of the Historical
and Canonical Function of Ecclesiastes*, Winina Lake, IN:
Eisenbrauns, 2006.
- Whybray, R. N. *Ecclesiastes*,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89.
- Zimmerli, W. “‘Unveränderbare Welt’ oder ‘Gott ist Gott’?: Ein
Plädoyer für die Unaufgebbarkeit des Predigerbuches in der
Bibel,” in: H.-G. Geyer et al. (Hrsg.), “*Wenn nicht jetzt, wann
dann?*”, FS H.-J. Kraus, Neukirchen-Vluyn, 1983.

검색어

코헬렛

안티페미니스트

인용이론

여성혐오적

여성으로 인격화된 지혜

여인으로 인격화된 어리석음

Was Qoheleth an Anti-Feminist? : Ecclesiastes 7:25-29

Jun-Hee Cha, Dr. theol.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Hansei University

The research range of this thesis is from Ecclesiastes 7:25-29, which is the most difficult part in terms of interpreting the texts. Among the verses, this study focuses on verse 26 in particular, which is the most controversial one. The characteristic of the book of Qoheleth is determined by the understanding of the verse, which has been known to have misogynistic contents. This thesis will introduce and evaluate existing theories, and uphold one of those.

First of all, the understanding that verse 26 is ‘the statement of hatred of women,’ is contradictory to Ecclesiastes 9:9 which clearly evaluates woman positively. The view that the verse is ‘the partial statement of

www.kci.go.kr

hatred of women’, also, has a grammatical flaw because the sentence of <asher hi> cannot be interpreted as the restrictive sense, but as the explanatory sense. Another opinion that the verse is a ‘metaphorical statement’ has a problem of impracticability. Because it is not appropriate to interpret only the word appeared in v. 26 metaphorically, considering that the same word occurs two times in the following paragraph: ‘the woman<haisha>’ in v. 26 and “women<isha> in v. 28.

To understand this passage rightly, the present writer proposes, ‘quotation theory’ in reference to interpret this verse seems to be highly persuasive. If ‘quotation theory’ is right, Qohelet is not a Anti-Feminist. On the contrary Qohelet maintains that the claim of hatred of women is wicked, foolish, folly, and the typical act of insanity.

Keywords

Qoheleth

Anti-Feminist

Quotation-Theory

misogynistic

Lady Wisdom

Dame Folly

- 투고일: 2014년 4월 01일
- 심사일: 2014년 4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5월 06일